민 족 문 화 경 전 이 야 기 총 서

国家“十二五”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规划项目
民 族 文 字 出 版 专 项 资 金 资 助 项 目

따따르족

塔塔尔族

Tătă'ĕrzú

편 자 마이노 . 싸나티베고, 대기복
역 자 윤재윤

료녕민족출판사
외국어교학과 연구출판사

© 尹在润 2014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有限责任公司 2014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塔塔尔族：朝鲜文 / 马衣努·沙那提别克，代启福编；尹在润译. —沈阳：辽宁民族出版社，2014.6
（民族文化经典故事丛书）
ISBN 978-7-5497-0810-9

Ⅰ.①塔… Ⅱ.①马… ②代… ③尹… Ⅲ.①塔塔尔族—民族文化—中国—少儿读物—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Ⅳ.①K284.2-4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4）第124946号

塔塔尔族
TATAERZU

出版发行者：辽宁民族出版社
地　　址：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110003
印 刷 者：沈阳海世达印务有限公司
幅面尺寸：180mm×240mm
印　　张：5
字　　数：40千字
印　　数：1-1500
出版时间：2014年6月第1版
印刷时间：2014年6月第1次印刷
责任编辑：张学林
封面设计：杜　江
责任校对：李　京

标准书号：ISBN 978-7-5497-0810-9
定　　价：18.00元

法律顾问：陈　光
举报电话：024-23284336
邮购电话：024-23284335
联系电话：024-23284340
版权专有　侵权必究
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出版社联系调换
网址：www.lnmzcbs.com
淘宝网店：http://lnmz2013.taobao.com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편집위원회

주편

왕천근

부주편

장해양　　학상근

편집위원회성원(ㄱㄴㄷ 순)

곽우파　　두얼버타이(몽골족)
리소빙　　푸츠다링(이 족)
샌미시누(위글족)　　석국용
장금수(투쟈족)　　전산천
정 아(회 족)　　황 연(거로족)
양 화　　웅덕정(푸미족)
왕 리(만 족)　　왕 봉(바이족)
왕효징　　위 평(쫭 족)
왕해연(챵 족)

심고전문가(ㄱㄴㄷ 순)

김여빈(회 족)　　송 전(몽골족)　　수 청(몽골족)
장약박(몽골족)　　왕철지(몽골족)

서 언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품치는 중국심(中国心)을 그 누구도 개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쫭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뚱족, 요족, 바이족, 투쟈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족, 다우르족, 무로족, 챵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앙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룽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杂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이 서로 교제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 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녕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여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력사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慕)" 경마에서 운남 시쌍반나 따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지붕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싸르왕전》에서 리강 량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쫭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르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툴판 포도골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둥둥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국 56개 민족의 력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 "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력사문화발전을 주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 편찬위원회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목 록

제1장 따따르족의 력사

"달단"부락의 후대 /9

중국 따따르족의 유래 /13

제2장 따따르족의 의식주행

따따르족의 복식 /18

식탁우의 미식 /20

오장이 구전한 복식건축 /24

구유차와 마차——교통도구 /27

제3장 따따르족의 인생의례

요람례와 분수례——두가지 고전적인 출생의식 /29

혼례——먼저 "시집"가고 후에 "장가"들기 /33

제4장 따따르족의 종교신앙과 명절

따따르족의 종교신앙 /34

따따르족의 명절 /37

사반축제의 래력 /45

제5장 따따르족의 민간예술

따따르족민요 /47
희극——민간생활의 또 다른 표달류형 /53
무용——생활의 실천이 원천 /55
악기——선조의 지혜에서 기원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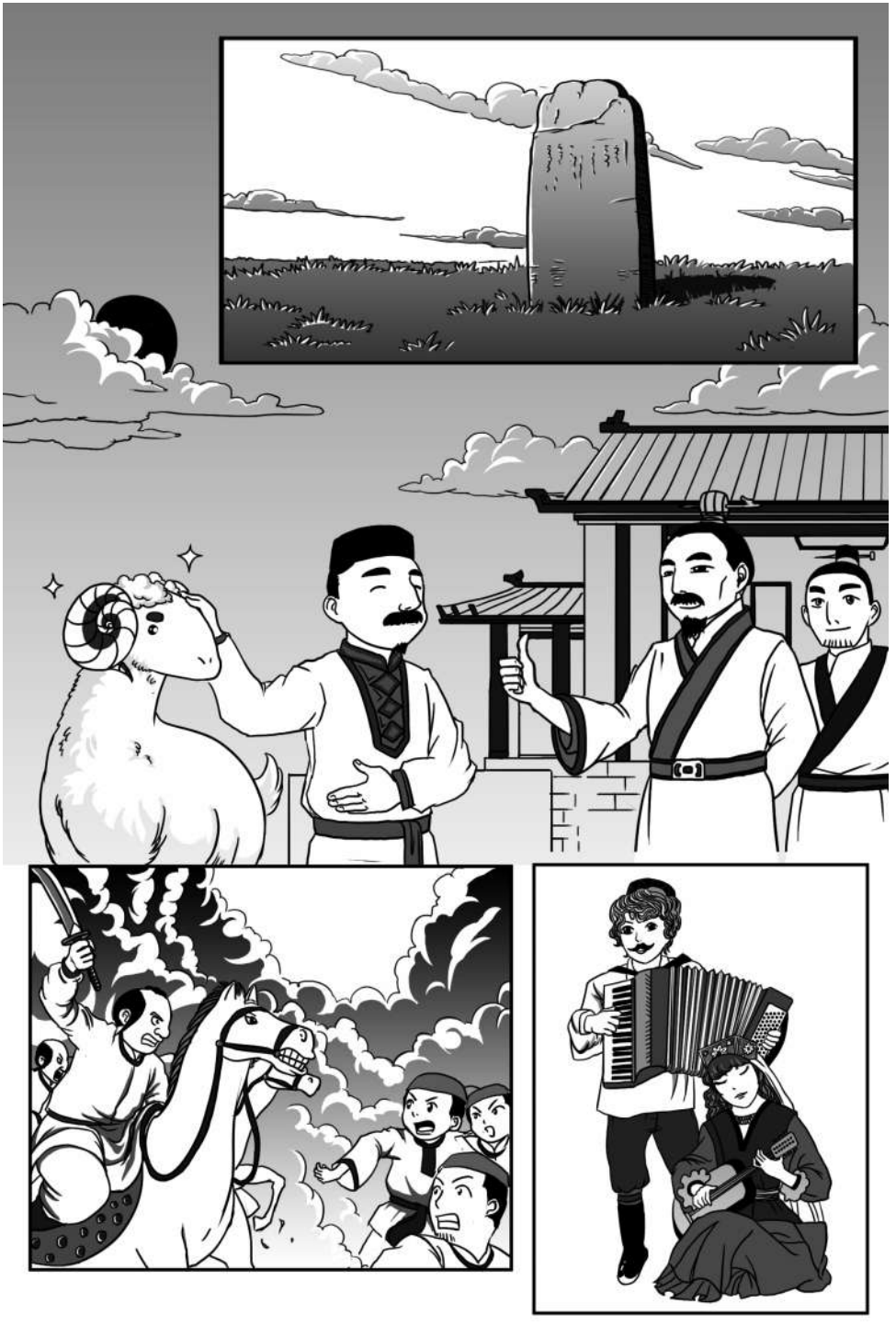
제6장 따따르족의 전통체육

장대오르기 /61
달리기 /63
경마 /65
격목 /67

제7장 따따르족의 민간이야기

행복의 비밀 /69
총명한 소녀 /75

참고문헌



제1장 따따르족의 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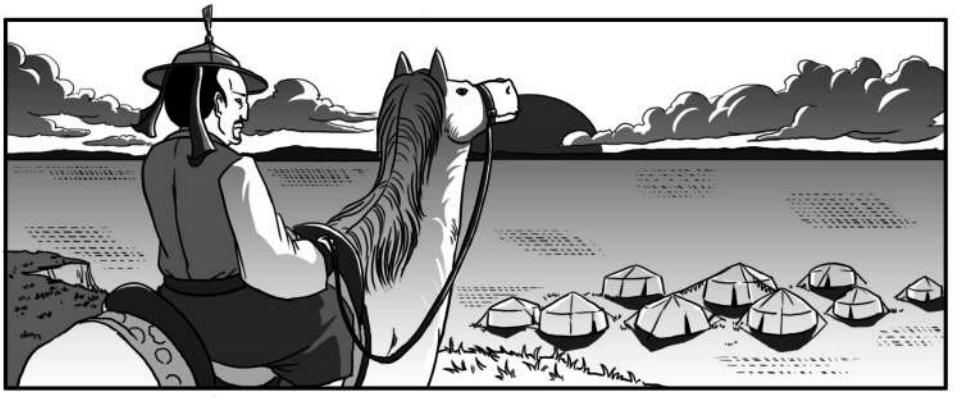
중국에는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다. 그중 인구총수가 10만명 이하인 민족이 22개로 따따르족이 그중의 하나이다. 2000년 제5차 전국인구보편조사 수치에 의하면 따따르족인구는 4890명으로 주요하게 신강위글자치구의 일리(伊犁), 쵸췌크(塔城), 우룸치 등 도시와 진에 분포되여있다. 이외에 치타이현(奇台县)과 짐살르현(吉木萨尔县) 및 알타이의 농목축구에도 소수의 따따르족이 거주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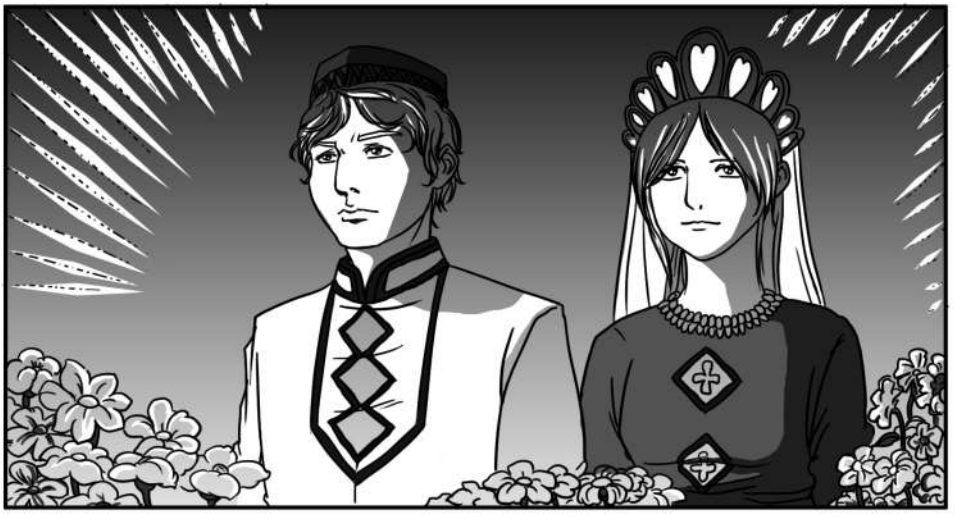
"달단"부락의 후대

"따따르(塔塔尔)"는 Tatar의 한어음역으로 본 민족의 자칭(自称)이다. 이 칭호가 가장 일찍 나타난것은 어르훈예니세이의 비문에서이다. 후에 사서(史书)에서 나타나는 "다탄(达坦)", "달단(鞑靼)", "다다(达达)" 등은 모두 "따따르"의 부동한 번역명이다. 우리 나라의 따따르족은 카산(喀山)따따르, 크리미야따따르, 노가이인(人), 예니세이따따르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여있다.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따따르족의 선조는 우리 나라 고대유목민인 돌궐(突厥)칸국 통치하의 "따따르"부락 즉 후일의 "달단(鞑靼)" 본부이다. 8세기경 돌궐인들은 동쪽 스웨이(室韦)의 여러 부락을 "따따르"라고 불렀다. 돌궐이 망한후 달단부락은 대부분 회흘(回纥, 위글족의 옛 명칭) 및 샤가스(끼르기즈족의 옛 명칭)에게 귀순되고 일부분은 중원왕조와 조공(朝贡)관계를 맺었다.

9세기중반 회흘은 샤가스에게 멸망되였다. 달단부락은 이때를 틈타 회흘의 본고장에 주인으로 들어와 사막북부지역을 호령하며 몽골초원에서 가장 강대한 부락으로 되였다. 10—20세기 달단부락은 이슬람교에 귀의하였다.





13세기초 칭키스칸이 몽골고원의 여러 부락을 합병하였다. 달단부락도 그에게 소멸되여 칭키스칸의 손자 버두가 세운 진장(金帐, 친차钦察)칸국에 합병되였다. 14세기에 이르러 종군하여 서정(西征)하던 다다인과 돌궐인, 몽골인, 친차인 및 볼가인들은 함께 자신을 "따따르"라고 고쳐불렀다.

15세기 상반기 따따르를 위주로 한 카산칸국은 진장칸국을 대체하여 궐기하였는데 이 시기 따따르민족이 점차 형성되였다. 16세기중엽 따따르정권은 짜리로씨야에 병탄되였다. 16—19세기의 로씨야문헌에는 그 경내의 돌궐어민족을 통털어 "달단인"으로 불리였다. 지금까지도 로씨야는 여전히 따따르족을 "달단인"으로 부르고있다. 1920년 5월 다다자치공화국이 성립되여 로씨야련방에 소속되였다.

중국에서 우리는 따따르족형성시의 자칭을 존중하여 여전히 "따따르족"이라 부르고있다. "달단"이나 "따따르"는 동일한 민족을 두 나라에서 부르는 각기 다른 명칭이라고 할수 있다.

달단(鞑靼)은 옛 명칭으로 다다(达怛), 다단(达旦), 다다(达靼), 다다(达达), 따따르 등으로 달리 불리기도 한다. 그 명칭은 당조시기에 나타났는데 돌궐통치하의 한 부락의 지칭이였다. 돌궐이 멸망한후 달단은 점차 강대한 부락으로 되였다. 료(辽), 송(宋), 금(金)때 달단외에 흑달단(黑鞑靼, 사막북부 몽골부락)와 백달단(白鞑靼, 사막남부의 왕고[汪古]부락)이라는 칭호가 있었다. 몽골이 흥기한후 달단은 몽골에 의해 멸망되였는데 서방에서는 여전히 몽골을 달단이라고 불렀다. 원조가 멸망된후 명조는 몽골 칭키스칸의 후예 각 부락을 달단이라 불렀다. 이외에 넓은 의미에서 달단은 때로 중국 북방 여러 민족에 대한 총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중국 따따르족의 유래

따따르족은 19세기 20-30년대부터 중국 신강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주요하게 카산(喀山), 우파(乌法), 자이산(斋桑), 투만(突曼), 셰미레치(斜米列齐), 시베리아 등지에서 이주하여왔다. 따따르족의 이주경로는 주요하게 까자흐스딴을 거쳐 신강북부의 쵸췌크(塔城), 수이딩(霍城), 지무나이(吉木乃) 등지로 들어왔으며 소수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타쉬콜간으로 와 신강남부로 이주하였다.

일찍 19세기초반 볼가강류역에서 생활하고있던 따따르족은 짜리로씨야의 압박에 견디다못해 일부분 사람들은 알타이산북부의 까자흐부락으로 도망갔다. 19세기 상반기 짜리로씨야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침입을 강화하여 따따르족은 할수없이 계속하여 동쪽으로 이주하였다. 1830년을 전후하여 부분 따따르족은 천산을 타넘어 우리 나라 신강으로 이주하여 알타이, 쵸췌크 등지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바로 가장 일찍 신강으로 이주한 따따르족이다.

19세기중반 짜리로씨야는 우리 나라 신강지역을 침입하면서 대량의 이민을 이주시켰는데 그중에는 따따르족도 적지 않았다. 1905년 로씨야자산계급혁명이 발발하자 일부 따따르족 청년들과 종교인사들이 신강으로 도망쳐왔다. 1912년 신강 어르치스강에 부두가 건설되자 대량의 따따르족상인들이 신강 부르친현(布尔津县)으로 몰려들어 무역활동에 종사하였다. 로씨야10월혁명이후 대량의 로씨야인들이 신강 일리, 쵸췌크, 알타이 등 지역에 들어왔는데 그중에는 따따르족이 적지 않았다. 1930년에 이르러 쏘련에 대기근이 들어 또 일부의 따따르족 로동자, 교원, 농목민들이 신강경내로 이주하였다. 100여년래 신강으로 이주한 따따르족과 기타 민족들은 화목하게 지내면서 함께 조국의 변강을 개발하였다.

신강 따따르족목민들은 다수가 대천(大泉)따따르족향에 거주하고있다. 이 향은 1989년 7월에 성립되였는데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따따르족을 주체로 한 목축향이다. 대천따따르족향은 치타이현(奇台县)과 짐살현(吉木萨尔县)지간에 위치해있는데 천산산맥의 동쪽끝자락에 있으며 북쪽은 쿠르반퉁구터사막이다. 전 향은 따따르족, 까자흐족, 한족, 위글족 등 7개 민족으로 구성되여있으며 주로 농목축업에 종사하고있다.

따따르족은 본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갖고있다. 대천향의 따따르족이 장기적으로 까자흐족과 함께 생활하고있으므로 그들 대부분의 풍속습관은 까자흐족과 비슷할뿐아니라 까자흐족의 언어와 문자를 통용하고있다.

신강 일리지역은 대천따따르족향이외에 또 하나의 따따르족집거지역이다. 일리지역으로 이주한 따따르족은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당지의 기타 민족과 혼거하면서 빠른 속도로 당지사회에 융합되고있다.

일리의 따따르족은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의 영향을 받아 다수가 따따르어를 할줄 알며 또한 따따르족문자를 사용하고 동시에 기타 민족의 언어를 배우고있다. 때문에 그들은 따따르족의 언어문자를 보류하고있을뿐아니라 기타 민족의 언어도 익히 알고있으므로 그들가운데서는 많은 우수한 번역가가 용솟음쳐나왔다.

《동방전사(东方全史)》는 따따르족지식인인 쿠르반와이리 하리더 선생의 사학(史学)거작이다. 이 책은 중세기 및 근대중앙아시아 각지의 일련의 사회력사적문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론평, 저술하고있으며 까자흐, 우즈베크, 끼르기즈, 몽골 등 민족의 기원과 칸의 세가체계(世系)를 자세하게 천술하고 중앙아시아지역 산천지명의 래력, 중대한 력사적사건과 사회현상 및 많은 천문지리지식 등을 기술하였다.

언급하여야 할것은 여러 민족 언어를 잘 알고있는 따따르족지식인들이 일리 지역 까자흐족, 위글족 등 민족의 근대교육사업에 뛰여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다. 19세기말 20세기초 신강의 발전은 매우 락후하였고 신강 각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교육 등 각항 사업은 기본상 중세기의 발전수준에 머물러있었다. 위글족 등 민족의 학교에서는 여전히 낡은 교수법 즉 13세기에 흥기한 경문(经文)전수를 위주로 한 이슬람사원의 경당식(经堂式)교육을 실시하였다.

유럽의 공업혁명으로 인한 현대공업기술과 과학지식이 신강에 전입됨에 따라 따따르족지식인을 대표로 하는 신강의 진보적지식인들은 낡은 교육방식은 날이 갈수록 사회의 발전에 적응할수 없으며 신강 여러 민족 동포들이 빈곤과 락후한 현실에서 벗어나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관건은 새로운 문화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는것을 점차 깨닫게 되였다. 19세기말로부터 20세기 30년대초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려는데 뜻을 둔 따따르족지식인들의 영향하에 우룸치, 이녕(伊宁), 쵸쳑크(塔城) 등지의 따따르족, 위글족, 까자흐족, 끼르기즈족 등 여러 민족 군중들은 성세호대한 교육개혁운동을 일으켰는바 이것이 바로 “경문(经文)학교”를 “과학학교(현대문화지식을 전수하는 학교를 가리킴)”로 개조하는 새로운 교육운동인것이다. 이 교육개혁은 신강 각 방면의 발전을 크게 촉진하였다.

이녕시에 따따르족의 성지로 불리는 따따르족선조의 묘지(祖坟)가 있는데 200여년의 력사를 갖고있다. 1830년부터 이 묘지에 따따르족의 민족영웅을 안장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따따르족 유명인사와 여러 업종의 뛰여난 인물들이 모두 이곳에서 잠들고있다. 그들은 일찍 신강과 따따르민족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곳은 줄곧 따따르족을 응집하고 단결하는 정신적가원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이 성지는 따따르족이 신강으로 이주할 때의 많은 력사적이야기를 지켜봐온 증언자라고 할수 있다.